
KIET 경제·산업동향

2010. 8.

산 업 연 구 원
동 향 분 석 실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4
2. 실물경제	7
3. 국내금융	9
4. 산업별 동향	11
5. 고용	13
6. 수출입	14
< 부 록 >	
1. 위안화 평가절상 전망과 시사점	17
2. 경기선행지수로 본 향후 중국 경제	19

< 요약 >

- 해외경제 : 주요국 지표 부진으로 경기 둔화의 확산 가능성
 - 미국은 6월 대다수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
 - 일본은 5월 실물지표들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유로권도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
 - 중국은 2분기 소비와 수출 증가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투자 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성장률도 전분기(11.9%)보다 낮은 10.3% 기록
 -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의 초점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에 모아지면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의 완화 및 유럽 금융기관들의 실적 호전 발표로 유가(WTI유)는 8월 들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

- 실물경기 : 6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로는 16.9% 증가
 - 내수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0%, 소매판매액은 3.8% 증가
 -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4.2%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6.0% 감소

□ 금융 : 6월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 전환, 7월말(7.26~30) 국고채
금리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6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감소 전환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소폭 감소 전환되어 전체적인 증가규모는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산업동향 호조 등 경기확장세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 현·선물 순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6월중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수출업체 월말 네고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7.4%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4% 증가

- 제조업생산(144.8)은 조선 등이 부진하였으나 기계장비, 철강, 자동차, 자동차, 화학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 전월대비 1.4% 증가
 - 제조업ICT(22.3%) 및 중화학공업(19.1%)이 생산 호조를 보였으며, 경공업(8.8%)도 생산증가
 - 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3.9%로 전월대비 1.1%p 상승
 -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20.1% 증가, 전기대비로는 5.2% 증가
- 서비스업생산(123.2)은 운수,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전월비로는 0.4%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한 업종은 운수업(12.6%), 보건·사회복지(12.3%), 교육서비스(10.7%) 등

□ 고용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31.4만명(1.3%) 증가

○ 6월 취업자 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수출입 : 7월 무역수지, 57억 달러로 6월에 이어 대규모 흑자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한 414억 달러, 수입은 28.9% 증가한 3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월에 이어 57억 달러의 대폭적인 흑자

○ 업종별로는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가격의 상승 등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

1. 해외경제

□ 미국 : 6월 경제지표 부진, 경기 둔화속 불확실성 우려 고조

○ 올 상반기 경기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6월 대다수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도 지난 1분기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

- 산업생산은 6월중 전월비 0.1% 증가에 그치면서 거의 정체를 보인 데다, 소매판매도 전월비 0.5% 감소하여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분기 전체 증가율이 1분기에 비해서 소폭 하락
- 경기체감지수도 ISM 제조업 지수가 6월중 56.2로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3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6월에 52.9로 하락하면서 체감 경기 약화를 반영
- 고용 부문에서는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가 6개월 만에 다시 감소하였고,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시현
- 버냉키 연준(Fed) 의장은 의회 증언을 통해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 악화시 추가 부양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견해 제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9년		2010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6	5.0 (0.2)	3.7 (2.4)	2.4 (3.2)	-	-	-	-	-
산업생산 (IT 생산)	-9.3 (-11.9)	1.7 (4.1)	1.7 (3.1)	1.6 (4.3)	0.0 (1.5)	0.6 (1.4)	0.3 (1.5)	1.3 (1.4)	0.1 (1.2)
내구재수주	-20.7	1.4	5.8	-	0.5	0.1	3.0	-1.1	-
소매판매	-6.3	1.8	2.0	1.0	0.6	2.1	0.3	-1.1	-0.5
소비자물가	-0.3	0.6	0.4	-0.2	0.0	0.1	-0.1	-0.2	-0.1
실업률(%)	9.3	10.0	9.7	9.7	9.7	9.7	9.9	9.7	9.5
무역수지(10억U\$)	-374.9	-104.7	-115.3	-	-40.1	-40.0	-40.3	-42.3	-
ISM 제조업지수 ¹⁾	46.2	54.6	58.2	58.8	56.5	59.6	60.4	59.7	56.2
소비자 신뢰지수 ²⁾	45.2	51.0	51.7	57.8	46.4	52.3	57.7	62.7	52.9
경기선행지수 ³⁾	101.9	105.8	108.4	109.8	108.0	109.6	109.5	110.0	109.8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04년=100

□ 일본 : 5월 생산 정체·소비 감소, 경기선행지수 2개월 연속 하락

- 광공업생산이 5월중 전달 수준에 그친 가운데 기계수주와 소매판매가 다시 크게 감소하면서 실물경기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 미래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도 2008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9년			2010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GDP)	-5.2	0.1	1.0	1.2					
광공업생산	-21.8	5.3	5.9	7.0	4.3	-0.6	1.2	1.3	0.1
민간기계수주	-27.7	-0.7	1.1	2.9	-3.1	-3.8	5.4	4.0	-9.1
소매판매	-2.0	0.9	-0.1	2.7	2.0	0.9	0.8	0.5	-2.0
소비자물가	-1.4	-0.3	-0.5	-0.4	-0.2	-0.1	0.3	0.0	0.1
실업률(%)	5.1	5.4	5.2	4.9	4.9	4.9	5.0	5.1	5.2
무역수지(10억엔)	2,671	1,049	1,708	1,658	61	647	950	735	321
경기선행지수 ¹⁾	82.1	84.0	91.4	99.5	96.9	98.1	101.9	101.7	98.6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05년=100

□ 중국 : 6월 경제지표 증가세 둔화, 2분기 성장률 10.3% 소폭 하락

- 산업생산 및 고정투자 증가율이 6월중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 전체 증가율도 1분기에 비해서 떨어진 반면, 소매판매와 수출 증가율은 6월중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선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2분기 경제성장률도 1분기보다 하락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09년		2010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GDP)	8.7	10.7	11.9	10.3	-	-	-	-	-
산업생산	11.0	18.0	19.6	16.0	20.7	18.1	17.8	16.5	13.7
고정투자(누계기준)	30.5	30.5	26.4	25.5	26.6	26.4	26.1	25.9	25.5
소매판매	15.5	16.5	17.9	18.5	17.9	18.0	18.5	18.7	18.3
소비자물가	-0.7	0.7	2.2	2.9	2.7	2.4	2.8	3.1	2.9
수출	-16.0	0.9	30.3	41.0	45.7	24.3	30.5	48.5	43.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권 : 5월 생산·소비 동반 증가, 재정불안 우려 해소 미지수

- 산업생산이 5월중 전월비 1.0%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소매판매가 전월비 0.2% 증가하여 2개월 만에 증가세를 시현. IMF는 유로권의 재정 불안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

유로권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9년			2010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GDP)	-4.1	0.4	0.0	0.2	-	-	-	-	-
산업생산	-14.9	2.6	1.3	2.5	2.3	-0.6	1.8	0.9	1.0
소매판매	-1.7	-0.1	0.3	0.3	-0.3	0.0	0.6	-0.8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0.4	0.4	1.1	1.0	0.9	1.4	1.5	1.6
무역수지(10억유로)	17.0	5.8	9.5	4.0	1.2	2.4	0.3	0.1	-3.0
경기체감지수 ¹⁾	80.8	84.1	91.9	96.6	96.0	95.9	97.9	100.6	98.4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화 약세 지속, 유가 3개월 만에 80달러 돌파

-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의 초점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에 모아지면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달러/유로는 4월 이후 최고치, 엔/달러는 2009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 미국 원유 재고의 증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의 완화 및 유럽 금융기관들의 실적 호전으로 유가(WTI유)는 8월 들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 미 달러화의 약세도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주요 국제가격 변수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5
엔/달러	90.64	93.02	90.27	88.97	93.47	93.85	91.26	88.43	86.47	85.82
달러/유로	1.3972	1.4321	1.3863	1.3631	1.3510	1.3294	1.2306	1.2238	1.3052	1.3189
미 국제(10년만기)	2.21	3.84	3.58	3.61	3.83	3.65	3.28	2.93	2.91	2.90
WTI유	44.60	79.36	72.89	79.66	83.76	86.15	73.97	75.63	78.95	82.01
Dubai유	37.02	78.29	71.84	74.33	79.05	85.65	73.28	73.24	73.74	78.19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실물경기 : 6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로는 16.9%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내수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소매판매액은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 확대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24.2% 증가,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0% 감소

실물경제 주요지표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2.3	0.2*	8.1* (2.1)*	7.2* (1.5)	-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1.3	0.2*	6.3* (0.7)*	3.7* (0.8)*	-	-	-	-	-
내수소비재 출하	1.6	0.6	10.2	4.6*	6.6	9.1	7.4	3.4*	3.0*
설비투자(국민계정)	-1.0	-9.1*	29.9* (2.4)*	29.0* (8.1)*	-	-	-	-	-
설비투자 추계	-3.0	-8.0	25.5	24.5*	18.5	34.0	25.6	24.0*	24.2*
건설투자(국민계정)	-2.8	4.4*	2.3* (1.3)*	-2.7* (-3.4)*	-	-	-	-	-
건설기성액	-8.1	1.7	2.0*	-3.8*	-3.0	5.5*	-5.7*	0.7*	-6.0*
산업생산지수	3.4	-0.8	25.8	19.4*	18.9	22.7	20.1	21.7*	16.9*
출하지수	2.6	-1.7	21.8	17.0*	14.4	19.7	17.6	19.0*	14.6*
재고지수	7.1	-8.0	6.6	15.6*	4.2	6.6	10.9	14.8*	15.6*
제조업가동률(당기)	77.5	74.6	80.5	83.0*	80.3	82.4	82.2	82.8*	83.9*
수출증가율	13.6	-13.9	36.0	33.1	30.1	34.2	29.8	40.3	30.1
수입증가율	22.0	-25.8	37.2	43.1	37.2	48.5	42.6	49.1	38.2
무역수지(억달러)	-133	404	32	144	20	19	39	41	6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주 : ()안은 전기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제조업 가동률은 당기수치, *는 잠정치, **는 속보치.

□ 2/4분기 실질GDP(속보) : 전기대비 1.5%, 전년동기대비 7.2% 성장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지출측면에서는 재고증가와 더불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재화수출 등의 호조로 7%대의 높은 성장세(전년동기비) 기록

□ 소비자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대비 0.3% 상승

- 7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대비로는 0.3% 상승

□ 실업률 : 6월 계절조정 실업률 3.5%

- 6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희망근로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보다 0.4%p 낮아진 3.5%를 기록
 - 실업자수는 87.8만명으로 전월동월대비로는 8.3만명(-8.6%)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9%, 비경제활동인구는 1.7%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62.0%)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물가 및 고용

(%)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대비)	4.7	2.8	0.2	1.0	0.9	0.4	0.3	0.5	0.1	-0.2	0.3
(전년동월대비)	4.7	2.8	2.4	2.7	2.6	2.7	2.3	2.6	2.7	2.6	2.6
실업률	3.2	3.6	3.6	4.3	3.5	4.4	3.8	3.7	3.2	3.5	-

자료 : 통계청

주 : 실업률은 계절조정치

3.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신용 : 6월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 전환

- 6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5월의 2.1조원에서 -1.9조원으로 감소 전환(대기업 -0.4조원, 중소기업 -1.6조원)
 -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기업구조조정을 앞둔 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 등으로 감소(5월 1.9조원→6월 -1.6조원)
 - 대기업대출도 기업의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감소(5월 0.3조원→6월 -0.4조원)
- 회사채는 금리저점 인식에 따른 장기채 발행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예상,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월수준의 순발행 규모 기록(5월 0.9조원→6월 0.9조원)
- CP(공기업 포함, 6.20일 기준)는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일부 기업의 M&A자금수요 등으로 순상환 규모 축소(5월 -1.8조원→6.1~20일 -0.4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가상승에 따른 대기업 유상증자 등으로 전월보다 큰 폭 증가(5월 0.8조원→6월 1.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08		2009		2010		10.6월말 잔액	
	연중	6월	연중	6월	4월	5월		
■ 원화대출	78.3	8.0	14.5	-1.6	3.5	2.1	-1.9	518.0
(대 기업)	30.3	1.7	-5.2	-2.5	2.8	0.3	-0.4	83.1
(중소기업)	48.0	6.3	19.7	0.9	0.7	1.9	-1.6	434.9
■ 사모사채 인수	-6.7	-0.3	-2.9	-0.6	-1.3	-0.3	-0.7	21.1
■ CP순발행	13.3	-1.6	-9.7	-3.5	3.4	-1.8	-0.4	23.5
■ 회사채 순발행	8.4	0.0	32.6	2.2	1.3	0.9	0.9	..
■ 주식발행	4.1	0.9	9.1	0.9	0.5	0.8	1.4	..

자료 : 한국은행

- 6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5월보다 증가규모 축소(5월 4.4조원→6월 2.5조원)
-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전월의 특이요인(삼성생명 우리사주·일반 공모주 청약,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계절요인) 소멸, 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한데 기인(5월 2.7조원→6월 -47억원)
-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대출금리 수준, 입주물량 증가, 6월말까지의 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 확대추세 지속(모기지론 양도 포함 : 5월 2.3조원→6월 2.7조원)

은행 가계대출 추이

(조원)

	2008		2009		2010			10.6월말 잔액
	연중	6월	연중	6월	4월	5월	6월	
은행 가계대출	25.0	3.1	20.1	4.0	1.7	4.4	2.5	417.9
■주택담보대출	18.1	1.3	25.4	3.5	1.8	1.7	2.5	273.2
[모기지론양도 포함시]	24.7	3.2	35.0	3.8	2.0	2.3	2.7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1.8	-4.5	0.5	0.0	2.7	-0.0	143.7

자료 : 한국은행

□ 금리 및 환율 : 7월말(7.26~30) 금리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산업동향 호조(광공업생산 전년동월비 +16.9%, 12개월 연속상승) 등 경기확장세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 현·선물 순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7.23일 3.85%→30일 3.80%, 0.05%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6월중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50.4억 달러, 역대 3번째 규모) 및 수출업체들의 월말 네고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7.23일 1,198.80원→30일 1,182.70원, 16.1원 하락)

주요 금리 및 환율 추이

(%,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Q	2Q	3Q	4Q	7월말	8.4
국고채(3년)	5.74	3.41	3.94	4.16	4.39	4.41	3.80	3.84
회사채(3년,AA-)	6.77	7.72	6.13	5.39	5.53	5.53	4.75	4.77
CD(91일)	5.82	3.93	2.43	2.41	2.75	2.86	2.63	2.63
CP(91일)	6.52	6.49	3.12	2.80	2.92	3.09	2.83	2.84
원/달러	936.10	1,259.50	1,383.50	1,273.90	1,178.10	1,164.50	1,182.70	1,168.40
원/100엔	833.33	1,393.89	1,414.80	1,336.28	1,318.80	1,262.82	1,369.95	1362.9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newspim

주 : 기말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7.4% 증가, 전월대비 1.4% 증가

○ 제조업생산(144.8)은 조선 등이 부진하였으나 기계장비, 철강, 자동차, 자동차, 화학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 전월대비 1.4% 증가

- 제조업ICT(22.3%) 및 중화학공업(19.1%)이 생산 호조를 보였으며, 경공업(8.8%)도 생산증가

- 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3.9%로 전월대비 1.1%p 상승

-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한 업종은 기계 및 장비(49.8%), 반도체(35.1%), 자동차(27.8%), 철강(24.2%), 컴퓨터 및 주변장치(11.3%), 의료·정밀·광학(10.9%) 등

- 전년동월대비 생산 감소한 업종은 조선(-13.1%), 통신·방송장비(-8.8%) 등

○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20.1% 증가, 전기대비로는 5.2% 증가

- 2분기 생산실적은 전년동분기대비 기계장비(51.8%), 반도체(42.1%), 자동차(35.5%), 철강(31.0%) 등 대부분 전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보였으며, 조선(-11.7%) 등은 생산부진

□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비 4.4% 증가, 전월비 0.4% 증가

○ 서비스업생산(123.2)은 운수,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전월비로는 0.4%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한 업종은 운수업(12.6%), 보건·사회복지(12.3%), 교육서비스(10.7%) 등

-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4.0% 증가, 전기비로는 0.6% 증가하였으며, 운수(13.2%), 보건·사회복지(11.0%) 등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임대(-2.7%), 예술·스포츠·여가(-0.2%) 등은 감소

산업 활동 추이

(2005=100, 전년동기비 %)

	2007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연간	4 / 4	1/4	2/4	4월	5월p	6월p
총지수	115.9	119.8	118.9	130.5	129.3	140.7	139.4	139.9	142.9
증 감 률	6.9	3.4	-0.8	16.2	25.8	19.4	20.1	21.7	16.9
S.A.전월(기)비	-	-	-	1.3	5.1	4.9	0.2	2.7	1.4
제 조 업	116.4	120.3	119.2	131.1	129.0	142.3	140.6	141.5	144.8
증 감 률	7.1	3.4	-0.9	16.8	26.8	20.1	20.7	22.4	17.4
섬 유	-1.3	-8.1	-5.9	2.4	16.3	13.1	14.2	14.6	10.6
화 학	6.9	1.1	5.0	20.9	12.8	5.3	5.2	4.2	6.6
철 강	5.0	2.4	-9.9	18.5	41.5	31.0	34.9	34.6	24.2
반도체	19.8	15.7	7.2	67.1	64.9	42.1	47.3	45.0	35.1
컴퓨터, 주변장치	4.8	-14.0	0.9	30.0	34.1	22.6	28.2	28.9	11.3
통신, 방송장비	-2.7	5.5	-9.9	0.1	2.7	-3.4	1.3	-2.3	-8.8
의료, 정밀, 광학	4.8	4.8	0.5	5.7	24.4	14.6	7.5	28.6	10.9
기계, 장비	10.0	0.7	-11.5	8.6	41.9	51.8	47.8	58.2	49.8
자동차	6.3	-3.3	-6.8	14.7	51.0	35.5	39.0	40.6	27.8
조 선	8.8	22.1	12.8	-2.4	-6.8	-11.7	-8.4	-13.6	-13.1
S.A.전월(기)비	-	-	-	1.1	5.3	5.2	0.1	2.9	1.4
중화학공업	8.3	4.4	0.1	20.0	30.2	22.2	23.2	24.7	19.1
경 공 업	2.0	-1.6	-5.7	1.7	10.6	8.8	7.7	10.1	8.8
제조업ICT	13.6	9.1	7.8	46.3	41.6	26.9	30.6	28.2	22.3
서비스업	112.1	116.1	118.4	122.5	120.2	123.5	124.4	123.0	123.2
증 감 률	6.7	3.6	2.0	3.7	5.7	4.0	3.8	3.8	4.4
운수	6.5	4.3	-6.6	1.4	13.9	13.2	15.0	12.2	12.6
보건·사회복지	9.4	8.7	10.4	13.2	11.5	11.0	9.5	11.3	12.3
교육서비스	2.2	1.7	2.8	-9.6	-0.8	1.1	1.0	-7.0	10.7
사업시설관리, 지원	9.0	4.4	-2.9	0.0	5.4	7.8	6.4	7.5	9.4
전문·과학 및 기술	5.4	2.0	1.1	2.0	3.1	3.7	-1.9	7.5	5.6
하수, 폐기물처리	4.9	5.8	3.7	-0.2	7.2	4.3	2.2	5.3	5.1
도매 및 소매	5.8	1.3	-0.4	5.4	7.4	5.5	5.7	6.0	4.8
협회·수리·개인	0.1	0.1	-1.8	2.4	1.3	4.8	3.1	6.7	4.7
금융, 보험	17.1	9.7	8.0	5.7	6.5	2.2	0.5	2.2	3.8
출판, 영상, 방송, 정보	3.8	3.3	0.8	1.8	1.2	0.4	-1.7	1.5	1.2
숙박 및 음식점	2.2	0.7	-1.5	-0.2	1.5	0.9	1.4	1.2	-0.1
예술·스포츠·여가	6.3	2.2	-0.5	-3.8	-3.5	-0.2	-0.9	1.3	-1.0
부동산 및 임대	3.1	-2.1	5.3	21.3	10.4	-2.7	7.7	1.9	-16.0
S.A.전기비	-	-	-	0.8	2.5	0.6	0.1	-1.2	0.4
ICT서비스업	6.6	3.7	1.9	4.2	4.1	1.1	-0.3	0.5	2.9

자료 : 통계청

5. 고용

□ 취업자 수 : 6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31.4만명(1.3%) 증가

○ 6월 취업자 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8.1만명(4.7%) 증가, 건설업은 전년동월대비 6.7만명(3.8%) 증가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5.5만명), 음식숙박업(-7.4만명)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금융 및 보험업의 증가(7.7만명)로 전년동월대비 4.3만명(1.5%) 증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부문이 감소(-14.1만명)하였으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5만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8.0만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9.1만명(2.3%) 증가

취업자 추이

(천명,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산업	23,577	23,506	23,751	23,631	23,037	24,170	23,377	23,924	24,306	24,280
전년동기대비	0.6	-0.3	0.0	0.0	0.6	1.8	1.2	1.7	2.5	1.3
농림·어업	-2.1	-2.2	-1.4	-6.9	-11.7	-4.6	-12.0	-7.3	-4.7	-2.1
광공업	-1.1	-3.2	-3.6	-1.2	1.6	4.4	2.9	3.7	4.9	4.7
제조업	-1.3	-3.2	-3.6	-1.2	1.6	4.5	2.9	3.8	4.9	4.7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1.3	0.5	0.9	0.9	1.3	1.9	2.0	2.2	2.7	0.9
건설업	-2.0	-5.0	-5.7	-5.9	-3.6	2.5	-0.9	1.1	2.6	3.8
도소매·음식숙박업	-0.8	-2.4	-2.8	-2.6	-1.0	-1.3	-1.6	-1.7	0.1	-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4.1	4.6	5.9	4.6	3.2	3.9	4.4	4.7	4.7	2.3
전기·운수·통신·금융	-0.5	-0.9	-0.9	1.8	4.1	2.4	4.2	3.5	2.1	1.5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수출입 : 7월 무역수지, 57억 달러로 6월에 이어 대폭 흑자 달성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한 414억 달러, 수입은 28.9% 증가한 3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월에 이어 57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410억 달러대를 달성

- 수입은 작년 수입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호조에 따른 수출용 설비도입 증가, 소비 회복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모두 급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가 전년동월에 비해 12.4% 증가(배럴당 68.9달러→77.4달러)에 그쳐 15.5%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억달러,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1~7월
수출	4,220 (13.6)	3,635 (-13.9)	1,040 (11.7)	1,012 (36.0)	1,203 (33.1)	394 (298)	390 (40.3)	419 (30.1)	414 (29.6)	2,629 (33.6)
수입	4,353 (22.0)	3,231 (-25.8)	929 (1.4)	980 (37.2)	1,059 (43.1)	355 (42.6)	349 (49.1)	355 (38.2)	357 (28.9)	2,396 (38.4)
무역수지	-133	404	111	32	144	39	41	64	57	2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지식경제부.

주 : 1)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7월 실적은 잠정치.

□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의 수출증가

- **디스플레이** : 4월 이후 패널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중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 지속
- **반도체** : 주력제품인 D램 단가 상승 및 세계 메모리시장 규모 확대로 3월 이후 5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초과하는 높은 수출액을 달성
 - * D램 단가(1G, 달러) : 1.18('09.7)→ 2.17('10.7)
- **자동차** : 해외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의 수요 회복과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판매 확대, 국산차 품질 향상 등에 따라 큰 폭의 수출증가세 지속
 - * 신흥국 시장 수출비중 : 47.7%('09.1~5월)→ 54.3%('10.1~5월)
- **조선** : 세계경기 회복으로 해운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기존 수주선박의 순조로운 인도가 이루어지며 수출증가세 유지. 해운시장의 안정적인 회복 전망에 따라 상반기 선박 발주량 증가 및 신조선가 회복세 지속
- **무선통신기기** : 스마트폰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 흐름에 다소 늦게 대응한데다, 업체간 가격경쟁 심화, 국내업체의 보급형 중저가 제품 확대로 수출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철강** : 전년동월 수출급감(-39.7%)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30%를 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전년 철강시황 악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0년 수출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세 유지
- **섬유** :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중국,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수출증가세 지속
- **석유제품** :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물량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년동월 대비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

- **일반기계** :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건설중장비 기계류의 대중국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인도, 브라질, 중동 등 신흥시장의 경기회복으로 완제품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
- **석유화학** : 원유,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전년 7월 수출급감(-26.9%)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역내 신규설비의 완공으로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수출증가율이 한자릿 수로 둔화
- **가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가전 교체 수요와 중국 중심의 신흥 시장 수요 확대,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제품 공급 확대로 높은 수출증가세 지속
- **컴퓨터** : HDD, 모니터 등 주변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 전환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1~7월
반도체	-16.0	-5.3	73.3	120.7	84.1	97.6	82.6	74.2	70.6	93.7
자동차	-6.0	-27.5	-6.9	51.2	62.1	57.9	69.3	59.9	49.7	55.9
무선통신기기	17.3	-13.2	-8.9	-10.6	-23.2	-24.2	-24.6	-20.9	-19.4	-17.5
일반기계	21.3	-28.0	-7.3	33.3	44.5	42.0	58.0	35.6	31.8	37.9
철강	29.7	-22.9	-13.6	14.9	14.7	16.2	38.1	-2.9	35.4	17.8
석유화학	11.5	-14.5	34.9	58.3	33.5	38.3	36.9	25.5	8.4	38.3
석유제품	56.8	-38.9	5.3	44.0	53.6	73.7	66.4	29.2	17.7	43.4
조선	55.4	4.6	-11.8	-7.4	9.3	-12.9	13.7	27.7	37.3	6.1
디스플레이	9.5	28.4	78.4	64.1	34.9	38.0	37.5	29.6	29.8	44.0
컴퓨터	-22.5	-25.1	25.5	33.7	19.4	20.8	13.5	23.8	-9.4	20.3
가전	-4.0	-22.0	18.3	42.6	35.3	31.4	46.3	29.6	43.5	39.4
섬유	-1.0	-12.6	2.0	22.8	20.3	13.3	27.0	22.1	17.6	2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지식경제부.

주 : 7월 실적은 추정치.

삼성경제연구소 (2010.07.27)

-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바스켓제도를 통한 환율결정시스템의 재가동을 발표(6월 19일)한 이후 위안화 평가절상 추세가 재개
 - 인민은행 발표 이후인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5거래일간 對달러 위안화 환율은 6.77로 하락(0.8% 평가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는 물론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
 - 2010년 들어 지속된 수출 호조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¹⁾
- 중국의 환율제도 운용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수출 동향에 의해 크게 영향
 - 중국은 현재 통화바스켓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율결정 체계가 여전히 불투명
 - 중국정부는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통해 위안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지속적인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통화바스켓제도를 운영한 이후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대해서는 추정방법에 따라 1%대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나,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20~30%선에서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

1) 2010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이 중 對美 수출은 44%, 對EU 수출은 43% 증가. 또한, 對美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24%, 對EU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는 등 미국과 EU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

- 균형 경상수지 모델에 의하면, 중국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약 20%의 평가절상이 필요²⁾
 - 균형실질환율 모델에 의하면 위안화는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및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17~18%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빠른 평가 절상을 제약하는 요인³⁾도 상존하므로 위안화의 절상 폭은 향후 5년간 20% 정도로 기대되고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국가별 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우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소득 감소효과를 가져와 구매력 증가 효과를 상쇄하여 수입 감소를 유발
 - 위안화 평가절상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한국의 對中 수출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높아 위안화 평가절상 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어 對中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1>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

기간	제도	내용
1981 ~ 1993	이중환율제	- 대외, 대내 환율을 차등적용
1994 ~ 1997	관리병동환율제	- 이중환율제 폐지, 환율 단일화 - 관리병동환율제, 일변동 ±0.3%
1997 ~ 2005. 7.	사실상 고정환율제	- 8.28위안에 고정
2005. 7. ~ 2008. 7.	통화바스켓제도	- 11개국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 - 일변동 ±0.5%로 확대 - 3년간 18.5% 평가절상
2008. 7. ~ 2010. 6.	사실상 고정환율제	- 6.83위안에 고정
2010. 6.	통화바스켓제도 재가동	- 평가절상 추세 재개

자료: “中國外匯体制改革回顧與展望”. (2009.12.9.) 『當代金融家』 ;
 Frankel, J. A. & Xie, D. (2009). Estimation of De Facto Flexibility Parameter and Basket Weights in Evolving Exchange Regime(Working Paper 15620).
 NBER

2) 10%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GDP대비 2~3.5%의 경상수지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즉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2.9%로 맞추기 위해서는 20%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필요

3)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2010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약화될 전망, FDI증가세 둔화 등

한국은행(2010.07.22)

- 현재 중국의 선행지수는 국가통계국, OECD, 美 컨퍼런스 보드의 세 기관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음
 - 국가 통계국과 OECD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4/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 중국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
 - 금년 5월부터 새롭게 선행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4월 경기선행지수의 상승률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전월비 +1.7% → +0.3%)하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
- 경기선행지수와 비교되는 기준지수(reference index)는 국가통계국과 컨퍼런스 보드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경기동행지수를, OECD가 자체 작성한 산업생산지수를 이용
 - 국가 통계국과 OECD의 경우 금융지표의 비중이 42.0%, 40.0%로 큰 반면 컨퍼런스보드는 16.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국가통계국은 순환 변동치, 컨퍼런스 보드는 추세가 제거되지 않은 추세순환 변동치, OECD는 두 가지 형태의 통계를 모두 발표
 - 시계열은 OECD가 가장 길며 다음으로 컨퍼런스 보드, 국가통계 순
- 2000년 이후⁴⁾ 세 경기선행지수는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나, 기준지수와 비교한 선행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통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00년 이후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전환점 시차가 3~5개월로서 비교적 편차가 적은 안정성을 보여줌

4) 중국경제는 2000년대 WTO가입 등으로 세계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시장경제 요소가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시계열이 짧다는 문제는 있으나 2000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선행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 1990년대에는 단 한 차례의 경기순환만 있었음.

- 국가통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추세나 불규칙 변동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통계상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경기 전환점 시차가 안정적이고 상관계수도 높아 현 시점에서는 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지수와 상관계수가 낮을 뿐 아니라 신호오류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계가 있고,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생산 값 예측에 우월하나 경기전환점 시차의 편차가 너무 큼
- 국가 통계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009년 10월 정점을 지났고 기준지수와 평균시차가 4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는 2010년 1/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 중국 통계국의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최근 추이⁵⁾를 감안할 때 선행지수의 하락세는 금년 1/4분기 정점을 지난 중국 경기가 적어도 금년까지는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
 - 그러나 경기가 지나치게 빠르게 하강할 경우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의 완화, 부동산규제조치의 철회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어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그 속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표2> 발표 기관별 중국 경기선행지수

	2009				2010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국가통계국*	105.0	105.8	105.4	105.4	104.7	105.1	104.5	104.1	103.4
전월차(p)	(0.8)	(0.7)	(-0.4)	(0.0)	(-0.7)	(0.4)	(-0.6)	(-0.3)	(-0.7)
OECD*	103.1	103.4	103.6	103.7	103.6	103.5	103.4	103.2	103.1
전월차(p)	(0.5)	(0.3)	(0.2)0	(0.1)	(0.0)	(-0.1)	(-0.1)	(-0.1)	(-0.1)
컨퍼런스보드**	104.1	140.9	141.3	141.8	142.8	143.6	144.6	144.6	145.8
전월비(%)	(0.7)	(0.6)	(0.3)	(0.4)	(0.7)	(0.6)	(0.7)	(0.0)	(0.8)

주: *) 순환변동치(장기평균=100)

**) 추세가 제거되지 않은 추세순환변동치(2004=100)

5) 통화긴축조치로 인한 주식시장의 부진, M2증가율의 둔화 등 금융변수의 반등이 예상되지 않고, 부동산개발투자 정부의 규제조치,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계심 등으로 차츰 위축될 조짐